

# 광주 착한가격 업소들 고물가에도 '착한마음' 곳곳

“재료 다 올라”·“코로나때보다 힘들어”  
 소비 위축 이종고 불구 가격 유지  
 직접 고기 손질 등으로 비용 줄여  
 “손님과 가게 잇는 게 장사 본질”



중동 전쟁 장기화로 외식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광주 '착한가격업소'들은 곳곳에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왼쪽부터 북구 강동호 담양숯불갈비 시장, 서구 이광훈·박효정수미식당 사장, 남구 최정남 사계절 시장.



/윤찬용 기자

“믿고 찾아오는 손님들 생각하면 가격을 쉽게 올릴 수가 없죠.”  
 미국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외식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광주 '착한가격업소'들은 곳곳에 기존 가격을 유지해 시민들에게 큰 보탬이 되고 있다.  
 21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담양숯불갈비'는 점심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웠다.  
 2007년 문을 연 이 식당은 올해로 20년째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남대학교 후문과 북구청 인근에 위치한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점심 시간이 한창인 정오를 넘긴 이후부터는 들어오는 이들보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이 더 많았다.  
 이에 대해 업주 강동호(63)씨는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 여파로 날이 갈수록 손님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전쟁 이후 매출이 20~30%는 줄었는데, 고기값부터 포장재까지 오른 재료가 없다”면서도 “판매가격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이곳은 현재 김치갈비양념전골을 1인분에 9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찜밥·불백 정식도 최저시급보다 낮은 1만 원이다.  
 강씨는 “물가가 오르면서 부담은 되지만 학생 시절부터 찾은 단골 덕에 가게를 이어가고 있다”며 “손님과의 유대 관계를 생각하며 버틴다”고 말했다.  
 담양숯불갈비와 같은 착한가격업소는 가격과

위생·청결,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특징이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광주 지역 식당 업주들은 모두가 힘든 이 시기를 함께 버티자는 '착한 마음'을 고수하고 있다.  
 2011년 서구 농성동에 문을 열어 2013년부터 착한가격업소를 유지하고 있는 '수미식당'의 업

주 이광훈(57)·박효정(55·여)씨 부부도 가격을 올리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점심 한끼를 밖에서 사먹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다”며 “재료를 아끼지 않는 대신, 반찬을 필요한 만큼만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도 “소비 자체가 줄어든 분위기라 코로나 19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긴 하다”면서도 “남는 것보다 가게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손님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착한가격업소로 등록된 남구 봉선동 '사계절' 식당의 업주 최정남(60·여)씨도 “어려울 때일수록 같은 서민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며 “고기 손질 등을 직접 하며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손님이 있어야 가게가 유지된다”며 “장사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라며 웃어 보였다.  
 한편 착한가격업소 현황은 행정안전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곳 업소에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지원과 함께 금융 혜택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윤찬용 기자

## '탱크데이' 스타벅스 향한 시민사회 분노 '활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에 대한 광주·전남 시민사회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143곳은 21일 오후 1시 서구 화정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입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창 동안 50여명의 시민들은 '스타벅스 불매 역사모독 규탄!', '가지 않겠습니다. 사지 않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새겨진 패킷이나 주먹을 흔들며 이번 사태로 느끼고 있는 분노를 표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는 온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분노를 안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논란이 있기 전 스타벅스코리아가 세월호참사 12주기였던 지난 4월16일에도 '미니탱크데이'를 열었던 것과 관련해선 “비극의 날을 거창한 이벤트가 우연히 가장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 ▲역사왜곡처벌법 개정과 기업 처벌 수단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요구 거부 시 스타벅스와 신세계는 전면 퇴출을 각오하라”며 “민중 영령들이 피로

이마트 광주점서 기자회견·퍼포먼스  
 정용진 회장 사퇴·엄정 수사 등 촉구  
 텀블러·머그컵 부수고 수건 불태워  
 1인 시위 예고...교육계도 불매 확산

지켜낸 광주에서 역사를 모독한 기업이 발 불일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전남 지역을 넘어 전국에서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국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영정 사진처럼 검은 띠가 둘러진 스타벅스 로고에 '불매' 스티커를 붙이고, 텀블러와 머그컵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마지막 퍼포먼스는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진 수건을 불태우는 것이었다.  
 기자회견 참여 단체들은 다음 날부터 광주 지역 스타벅스 매장 7개 매장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 교육계에서도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21일 광주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열린 광주·전남 시민단체의 스타벅스코리아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스타벅스 컵과 텀블러를 망치로 내려치고 있다. /조영권 기자

광주교육청은 각종 기념일에 스타벅스 상품권을 교직원 복지비를 지급해오던 일부 중·고등학교들이 스타벅스 상품권이나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실제 스승의날인 지난 15일 교무실무사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A 중학교는 앞으로 스타벅스 제품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B 고등학교도 2분기 교직원들 생일 기념으로 33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비전향 '남과 공작원' 보안관찰위반재판대에  
 중요 임무를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했다가 검거된 남과공작원이 다시 한번 재판대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예란 부장판사)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은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살다 나온 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안관찰처분은 안보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법무부장관이 내리며,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적사항이나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초·정기 신고 20여회를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 체제에 대한 무지나 심리적 저항감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날 원심 구형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재차 무죄를 구하며 앞으로 처분을 잘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A씨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한편 A씨가 맡았던 임무는 남한으로 망명했던 고위급 탈북 인사를 암살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A씨와 함께 입국했던 동료 모두 적발되면서 이 임무는 실패했다.  
 /안재영 기자

# 건강검진

## 매일 체크 ✓ 행복 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